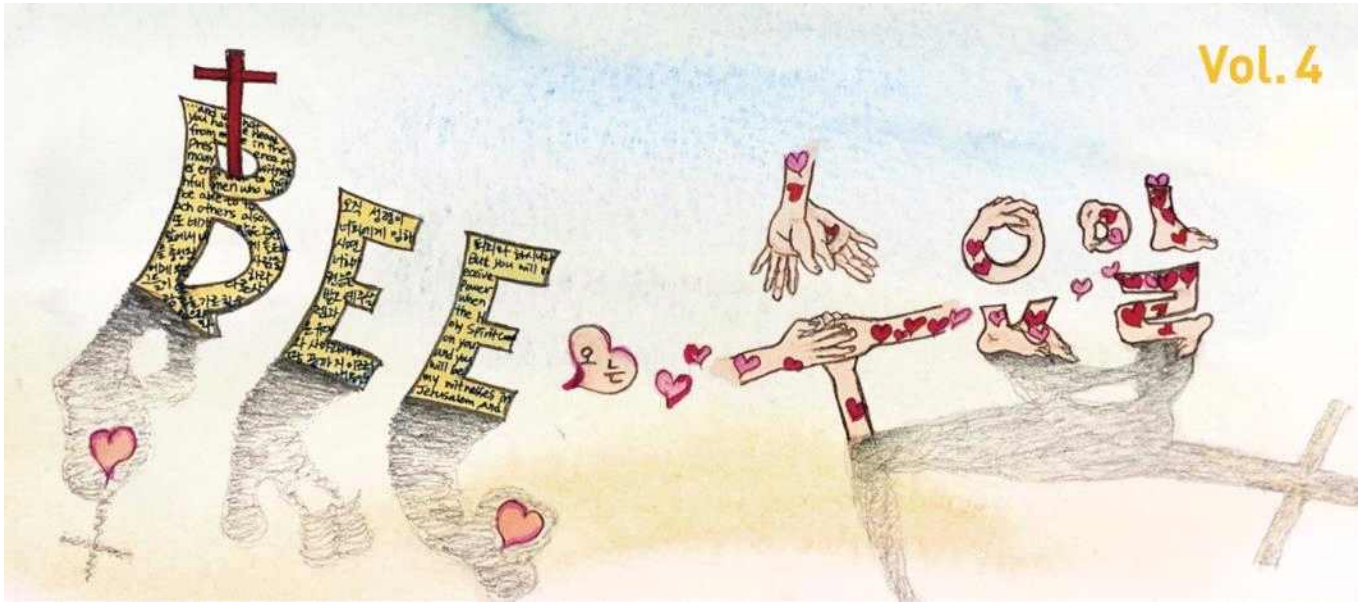




열일곱번째 이야기

[2019 ‘말씀을 행하라’ 실천 시리즈③]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매주 토요일 이른 아침마다 평안의 인사를 건네는 장안녀 권사님은 BEE 기도모임의 사회자로 모두에게 낮익은 분이시지요. 차분하고 진지한 성품처럼 충성되게 맡은 사역마다 최선을 다하시는 장안녀 권사님을 ‘BEE수’팀이 만났습니다.

Q. 간략하게 신앙이력을 나누어 주신다면?



장안녀 권사님

저의 신앙생활은 만남의 축복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였던 사촌 언니가 우리 형제들을 교회로 인도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어린이답게 그대로 믿었습니다. 몇 년 뒤, 형제들을 시작으로 가족 모두 구원을 받는 축복도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때는 ‘양떼’라고 부르며 말씀을 전하고 본보기가 되어 주신 대학생 선생님들이 계셔서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었고, 대학 1학년 때는 청년들로 구성된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면서 단계별로 성경 공부와 일대일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훈련들이 토대가 되어 청년부 때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출석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만남의 축복을 통해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양육자들을 만나 꾸준히 훈련받을 수 있었고, 지금 역시 BEE를 통해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배우고 자라갈 수 있음이 무척 감사합니다.

Q. BEE를 시작한 계기는?

교회 주보에 나온 ‘BEE 성경공부’라는 광고를 보고 2007년에 온비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BEE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채로 시작했지만 온비아 과정을 마치자 BEE에 매료되었습니다. 바로 이어 심화 과정과 FTS 훈련을 동시에 하느라고 직장도 BEE 외에는 다른 모든 사생활은 중단하고 성경공부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성경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이 기뻐했습니다.



Q. BEE를 통해 얻은 유익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평생 배우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함의 자각입니다. BEE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종류의 교재로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한 경험이 있었고, 사실 ‘평신도가 이 정도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BEE는 끝이 없었습니다. 결코 자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배우고 가르쳐야 할 것이 계속 있다는 사실 앞에 겸손해지며, 그 가운데 큰 희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미나 인도를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나면 저에게 그 과목이 가장 필요할 때였음을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Q. BEE 사역을 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일들은?



가장 최근의 기억입니다. 세미나를 통해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수기로 빼곡히 써서 마지막 과제와 함께 제출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항상 미리 연습을 하고 가장 먼저 리포트 제출란에 과제를 올리는 분이셨는데, 마지막 과제를 세미나 종강 전날까지 올리지 않더니 종강 날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함께 주셨습니다. 힘들 때 가끔 학생들이 주신 카드와 편지들을 다시 읽어보면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수강생들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바라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또한 그분들이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은 더욱 큰 기쁨입니다.

Q. 신앙생활에서 힘과 위로가 되었던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3:5,6) 부분적으로가 아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연습을 늘 하고 있습니다.

Q. 지금은 거의 회복되셨지만 투병하시는 동안 어떠하셨는지?

발병 후 인생에서 가장 많은 기도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입원 전 BEE 토요기도모임에서 저의 치료를 위해 합심하여 통성기도를 해 주셨는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전율과 함께 감사함이 넘칩니다. 이후 수술 등 모든 과정에서 단 한순간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수술 후 더 받아야 하는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를 했었고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한 대로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쉽게 허락을 받아 더 이상의 항암치료 없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면?

청년 때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모델이었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은 BEE를 통해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배우고 가르치는 데 저에게 주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Q. 믿음의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명하신 그곳에 묵묵히 충성되게 머무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 잠잠히 순종하며 머물러 있다면 세상의 잣대를 기준삼아 두려워하거나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머무름은 하나님께 앞드림이요, 하나님께 여쭙어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Q. 올해 BEE는 '말씀을 행하라'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 영역들이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함께 매달 성품 한 가지씩을 실천하고 있지요. 기도지에 나오는 내용을 모두 외우고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매달 나오는 성품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 물으며 답하고 있습니다. 이 수직의 관계가 정리되면 수평의 관계인 이웃 사랑의 실천에 더 가까워지겠지요. 말씀으로 변화를 받지 않고는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데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Q. 나에게 BEE란?



나에게 BEE란 꿈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대학 1학년인 저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준 분들은 그 당시 스물다섯 살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공부할 것 많은 젊은 학생들이데 매주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어 소그룹을 인도하고 일대일 교제를 통해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행함은 저에게 그들처럼 살고 싶은 꿈을 꾸게 했습니다. 결혼과 비전, 학업을 위해 아주 먼 나라에까지 흩어져 살기에 만날 수는 없지만 그때 받은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저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30대 중반, 일과 후 공허감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동안 잊었던 꿈의 성취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의 발로 사역의 현장에 가게 해주세요.'라고요. 꿈의 성취를 위한 10여 년의 기도 응답으로 40대 중반에 BEE를 만났고, 50대 중반을 BEE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 스물다섯 살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며, 동일하게 말씀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성장하도록 기도하며 행하고 계시는 권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20a)는 말씀이 떠오르는 것은 권사님이야 말로 '말씀을 행하는' BEE 가족임이 분명하기에!

[인터뷰: 김옥숙, 정리: 이경주, 편집: 최선 'BEE수' 기자]

BEE의 보석 찾기

17. 김찬주 권사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27세에 예수님을 만나고 로마서를 읽으며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어 BEE를 통해 로마서를 잘 배우겠다는 단순한 바람만을 가지고 2004년 온비아를 시작했다. 첫 세미나 갈라디아서부터 새로운 방식의 인도와 조별 나눔, 특히 교재가 너무 좋아 세미나에 매료되었고 동기들과 함께 5과목을 계속해서 공부했다. 무엇보다 복음과 구원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BEE 토요기도모임과 해외 아웃리치를 통해 선교에 눈을 뜨고 동참하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BEE는 나에게 든든한 ‘동반자’이다. BEE를 통해 배운 변치 않는 진리이고 생명수인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양육하는 데 나의 남은 생을 드리고 싶다.

온누리교회 권사로, 서초C 공동체 믿음 4순 순모로, 일대일 양육과 양재 BEE 토요기도모임 중동-아프리카 테이블 리더로 섬기고 있다. 가족은 남편 정치원 집사와 두딸과 사위, 손녀가 한 명 있다.

* BEE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BEE 소식

- 1. 6월 말씀을 행하라, '관용, 자기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공평하게 다른 사람의 복리를 생각하는 사려 깊은 속성'을 따라 행하는 우리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 2. 8월 30일(금) - 9월 2일(월) 양재 BEE 일본아웃리치! 지속적인 러브 소나타를 통해 일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그 마음을 품고 일본 땅을 향해 가는 양재 BEE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3. 6월 22일(토) 분기 별로 토요기도모임에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주는 김홍주 목사님(온누리 교회 이천 선교회)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히4:12-16)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선교지 곳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 상반기 'BEE 오는 수요일'은 이번 주 '열일곱번째 이야기'로 마감을 합니다. 9월 4일 수요일! '열여덟번째 이야기'로 은혜 가득한 나눔이 다시 이어집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해주시면서 기다려주세요.
- * 7월 8일(월) 25주년을 맞이하는 BEE KOREA의 'HOME COMING DAY' 소식을 7월 17일(수)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 * 태양이 작열하는 무더운 여름! 아웃리치와 여름 휴가 등 말씀과 쉼 가득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